

2021 THEME 믿음의 태도가 신앙의 고도를 결정한다

- I = Imaginative Ministry [창의적 사역]
- M = Making Disciples [제자 양육]
- P = Passionate Worship [열정적 예배]
- A = Action for the Gospel [복음의 실천]
- C = Community Outreach [이웃 섬김]
- T = Training Missionaries [선교사 양성] & Transforming the World [세상을 변화시킴]



담임목사: 김한요
Rev. Bryan Kim, Lead Pastor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el: 949.854.4010 ◆ Fax: 949.854.4018 ◆ www.bkc.org ◆ bethel@bkc.org

각 교육부 및 그 외 주일에배 안내



- 유아부(2-3세) / 온라인 예배
9:15AM & 11:30AM
- 유치부(4-5세) / 온라인 예배
9:15AM & 11:30AM
- 유년부(1-3학년) / 온라인 예배
9:15AM & 11:30AM
- 초등부(4-6학년) / 온라인 예배
9:15AM & 11:30AM
- 영어중등부(BYM Jr.) / 온라인 예배
9:15AM & 11:30AM
- 영어고등부(BYM) / 온라인 예배
9:15AM & 11:30AM
- 한어중고등부(CIM) / 온라인 예배
11:30AM
- 소망부(장애인) / 온라인 예배
9:15AM(청소년) & 11:30AM(어린이)
- BETHEL GRACE CHURCH / 온라인 예배
10:30AM
- 日本語 礼拝 / 온라인 예배
1:30PM

담임목사 방송설교 안내

- 케이블TV 방송 (CTS America):
TV DirecTV 채널 2092 · us.cts.tv
화요일/오후 8시 30분 · 목요일/오후 1시
- TV 방송 (미주 CGN TV):
TV 채널 31.9 · 화요일/오후 2시
- 라디오 방송 (GBC 미주복음방송):
주파수 AM 1190 KHZ · 금요일/오후 1시

주 일 예 배 Lord's Day Worship Service

0부 예배 | (토) 4:00PM 1부 예배 | 7:00AM 2부 예배 | 9:15AM 3부 예배 | 11:30AM 4부(청년) 예배 | 2:00PM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Presider 예배 인도자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사도신경 All together 다같이

*찬양과 경배 Praise & Worship Bethel Worship 베델 워십

영상광고 Media Announcement Media 방송실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0, 1, 2, 3부/히브리서 11:35b-40 All together 다같이
4부/에스라 8:1-36

말씀 Message 0, 1, 2, 3부 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히브리서 강해(36)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믿음

4부 Rev. Abel Kang 강문구 목사
애쓰라 예살청년!(10)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적용찬양 Song in Response All together 다같이
0, 1, 2, 3부/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찬102/새94장), 나 무엇과도 주님을

*결단찬양 및 봉헌 Song of Commitment & Offering All together 다같이
0, 1, 2, 3부/믿음 in '21 (2021년 주제곡)

*축도 Benediction 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표는 일어서 주십시오.

★ 온라인 예배는 동시통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www.bkc.org)

★ 교회학교 예배가 온라인으로 제공됩니다. 어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목회자 칼럼
Pastor's Column

심플한 처방 - 태도

Simple Remedy - Attitude



이충경 목사 / Rev. Choong Kyung Lee

세계 교회사에 유래 없는 성장 모델로 제시되며 심지어 교회 성장학이라는 학문이 태동 되기도 했던 한국교회, 지금의 모습은 어떤가요? 가나안 성도 즉, 교회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신앙인임을 자처하는 기독교인이 늘었을 뿐 아니라, 교회를 떠난 후, 돌아오지 않는 성도의 숫자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2014년 교단별 장로교회 증가와 교세 현황을 보면 통합, 합동, 고신, 합신, 기장총회 등 교회 숫자는 증가했지만 교인 수는 감소했던 양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비단 한국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주 지역 이민 2세대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렇듯 한국교회와 미주 한인 교회가 쇠퇴하는 원인은 '하나님의 형상-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의 실추'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를 회복시키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하나님이라는 이미지의 부재' 때문입니다. 교회와 성도에게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찾을 수 없기에 크게 실망하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엘리야 특별 새벽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김한요 담임목사님을 통하여 "믿음의 태도가 신앙의 고도를 결정한다"는 주제로 우리 믿음의 태도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미지 실추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기인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대하는 태도나, 신앙생활을 하는 태도, 교회와 공동체 그리고 이웃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돌아봄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가지 질문하게 됩니다. 오늘 이 주일, 영원한 저주에서 나를 구원해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격해야 할 예배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떤가요? 가만히 보면 목사이거나 예배를 섬기는 자여서 영적 태도의 문제가 없다고 여기지는 않습니까? 교회 중직자여서 영적 태도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영적인 태도에 문제가 있지만 이미 굳어져 버린 발바닥의 굳은살같이 느낌조차 없지는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Zoom을 통하여 엘리야 새벽기도회 강단 초청에 참여하신 분들을 보면서 그 새벽에 컴퓨터 웹캠 앞에 넥타이와 정장을 단정히 차려입고 앉은 신 노(老) 장로님의 모습에서, 열악한 선교지에서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인터넷 신호가 강한 곳을 찾아 장시간 운전 후 차 안에 앉아 기도하시는 선교사님 모습 속에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봅니다. 이 시대 신앙의 문제, 다음 세대의 문제, 한국교회와 미주 교회의 문제, 마지막 때의 영적 민감함의 문제 해결을 위한 처방은 무엇입니까? 심플합니다. 그것은 지금 나의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영적 태도가 바뀌면 영적 문제가 해결됩니다.

Korean Churches have shown to the world as unprecedented church growth model. It is said that Church Growth Studies field even stemmed from Korean Churches. However, what about now? There are increased number of so-called Canaan Saints who do not attend church but call themselves Christians. Increased number of people are leaving the churches. In 2014, when looking at statistics of each presbyterian denominations such as Integrated Presbyterian(Tong-hap), Joint Presbyterian(Hap-dong), Presbyterian Church in Korea(Go-shin), Korean Presbyterian Church(Hap-shin), Presbyterian Church in the Republic Korea(Gi-jang-chong-heu), number of churches increased but actual number of members showed decreasing pattern. The reason for the deterioration of Korean churches in U.S. and in Korea is in 'Loss of God's Image'. Jesus Christ restored the lost image of God by dying on the cross. The reason that many people are leaving the church is 'Absence of God's Image'. There is a great disappointment in churches and church members because beauty of God's image is not found in them. This past week, we had Elijah Early Morning Prayer. We heard Senior Pastor Kim's messages on the theme 'Attitude of Faith Determines Altitude of Faith'. Absence of God's image is none other than a problem of our attitude toward God. As believers, I wonder if we had deep reflections in our attitude toward Bible, attitude of life as a believer, and our attitude toward church community and neighbors. I would like to ask a question from that context. What is your attitude of worship on this Lord's Day when we should be thrilled and remember God's grace of being saved from eternal condemnation? Do you think being a pastor or serving in worship prevents you from problems of spiritual attitude? Do you think you don't have problems of spiritual attitude because you hold an important position in church? Perhaps the problem of spiritual attitude exists, but it has become calloused like heel of your foot.

I reflected deeply about attitude toward God as I watched on Zoom of those who were invited to pulpit prayer: the elders dressed in suit and tie sitting in front of web cam so early in the morning and the missionaries driving in search of stronger internet connection to tune-in and pray sitting in a car. What would be the remedy for problems of faith in this current era, problem of next generation, problems of Korean and U.S. Churches, and problem of spiritual sensitivity in the last days? It's simple. It is to change my attitude. Spiritual problems will be solved when there is a change in spiritual attitude.

코로나 숲을 뚫고 가는 로드맵

히브리서 강해

(주일설교시리즈) 제 36편

토요 0부, 주일 1-3부 설교노트 / 나눔교재

설교자: 김한요 목사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믿음

(히 11:35b-40)

- 1.** 시장에서 야채를 살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신선함일 것입니다. 여러 선택 앞에 놓여 있을 때,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습니까?

- 2.** 사도행전 강해(23) 때, 야고보는 칼로 죽임을 당하고, 베드로는 옥에서 풀려나는 기적을 체험하는 장면을 보고, "누군 데려가시고, 누군 살려내시고" 제목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행 12장)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데려가신 예가 나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적어 봅시다. (35b-38절)

- 3.** 고난을 자초한 믿음의 선진들의 선택은 무엇을 선택한 것이었다고 히브리서 설교자는 말하고 있습니까? (35b, 참고/고후 12:9-10, 외경 마카비후서 7:22-23)

- 4.** 더 좋은 부활을 선택하듯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음을 믿고 나아가도록 격려하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나누어 봅시다.(39-40절, 히 10:1, 10)



■ 적용찬양: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찬102/새94장), 나 무엇과도 주님을

베델사역
목장별 성탄찬송
UCC 페스티벌

찬양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즐거움



대상
UCC 페스티벌을 통해서 예상치 못한 대상을 받은 기쁨도 컸지만, 무엇보다도 UCC 제작을 통해서 신앙생활의 참 기쁨을 알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11월 말 셀목자님께서 UCC 페스티벌에 참여하자고 하셨을 때, 팬데믹으로 모두가 지친 상황에 페스티벌이 과연 어울릴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모든 셀식구들이 담당 파트 영상을 만들어서 제출했고 저희 가족 파트만 남은 상황까지 왔습니다. 하는 수 없이 '그래 일단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시나리오를 짜고 촬영을 하다 보니 어느새 가장 적극적으로 그리고 즐겁게 임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같습니니다. 내 생각으로 지레짐작 예측하지 말고 '일단' 기도하고, '일단' 말씀 보고, '일단' 공동체 모임에 참석하다 보면 주님과 동행하는 즐거움과 예상치 못한 열매까지 얻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페스티벌 개최로 잊지 못할 기억과 깨달음까지 선물해주신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년에도 '쇼미더 믿음'의 태도로 신앙의 고도가 더욱 높아지길 기대해 봅니다.

배재경 집사(믿음목장)

금상
팬데믹이라는 낯선 일상이 시작됐을 때, 나는 운

동화 끈을 질끈 매며 "곧 지나갈꺼야. 이젠 그저 200미터 달리기일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800미터를 가도 결승선은 보이지 않았고, 끊임없이 허들을 만났고, 모래 바람이 풀썩이는 사막에 길을 내며 뛰어야 했습니다. 사막 마라톤을 뛰고 있는 것 같았고, 시간이 지날수록 포기하고 싶은 간절한 순간들이 왔습니다. 말씀으로 힘을 얻어 나아가고, 또 주저앉기를 반복할 즈음 교회에서 UCC 페스티벌을 한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너무나 그리운 찬양... 저희 부부는 매일 일찍 퇴근해서 찬양과 운동 연습을 열심히 했습니다. 연습하는 내내 광야에서 들려오는 천사들의 노래가 우리의 마음을 감싸며 울려 퍼졌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었습니다. 함께 한 "몽땅쓰" 팀원들, 정말 감사하고 행복했어요. 우리 함께 이 광야의 사막 마라톤, 무사히 완주합시다. 화이팅!

최희윤 권사(사랑목장)

은상
2020년은 모두에게처럼 저희 가정도 여러모로 힘겨운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서도 이 험난한 2020년 걸음걸음마다 감사의 수많은 이유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중 하나가 0부 예배였습니다. 코트야드에서 드리는 색다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흐트러

지던 저와 가족들의 예배모습을 다잡아 주셨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로 지친 우리가족을 위해 하나님께서 성탄감사 예배 후 추침을 통해 경품도 허락하시며 또 하나의 감사와 기쁨의 제목을 주셨습니다. 또 저희 초원이 은상을 받게 되고 다른 셀들이 아이들이 많은 우리셀에게 양보한 양념치킨을 맛있게 먹으면서 초원의 사랑도 느꼈습니다. 험난했지만 따뜻한 2020년으로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최훈 집사(은혜목장)

동상

처음 베델교회 목장별 성탄 찬송 UCC 페스티벌 참여가 결정 되었을 때 걱정이 먼저 앞섰습니다. 같은 초원식구들 그리고 김홍식 목사님과 줌미팅으로 만나서 공정하게 준비뽀기로 지정곡으로 '저 들밖에 한밤중에' 를 뽑고는 근심이 더해졌습니다. 영상 제작이라는 대단히 생소한 작업과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셀식구들과 다른 교회식구들을 만날 기회가 많이 없어진 이 시기에 과연 영상제작을 잘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먼저 앞섰습니다. 하지만 초원 가족들과 아이디어를 내고, 의견을 나누고, 서로의 의견을 조정해 나가고,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차츰 뼈대가 잡혀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초원 셀식구들에게 주신 각기 다른 재능에 신기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했습니다. 많은 의견이 나누어지면서 점점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각 셀식구들과 힘을 합쳐 각 가정에서 찍어주신 영상을 받아 편집을 담당해 주신 집사님께 보내드리고 참석 가능한 셀식구가 오랜만에 교회에 모여 영상을 같이 찍으면서 저의 맘에 오랫동안 기쁨을 느꼈습니다. 저 들 밖 한밤중에 양 틈에 자던 목자들처럼 지금 지치고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에게 천사가 전해준 주 나신 소식처럼, 주님께서는 어려운 시기에도 주님의 자녀들은 생각하시며 언제나 함께하시고 계시다는 기쁜소식을 다시 일깨워주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본방시청을 하며 각 목장의 영상을 볼 때 많은 은혜가 되었고, 주님을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들을 느낄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박현승 집사(은혜목장)



은혜가 샘솟는 우리 셀



저희 은혜의샘은 2016년 가을에 처음 결성되어 두 번의 분가를 통해서 현재의 셀모임을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적지 않은 만남과 헤어짐이 있었네요.

저희 셀식구는 셀목자인 김준엽, 이윤재 집사님 가정과 서재철, 서진희 집사님 가정, 그리고 북가주에 가족이 있는 기러기 이원 집사님이 계십니다.

셀모임은 9월부터 줌 미팅을 통해 2주에 한 번씩 주일 저녁에 모이고 모임시간은 약 1시간 반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모임의 순서는 서로 안부를 묻고, 전하고 그리고 기도로 모임을 시작합니다. 본문을 읽고 돌아가면서 문제를 읽고 답을 나눕니다. 각 문제에 나와 있는 관련 성경구절은 건너뛰지 않고 꼭 읽습니다. 설교노트 나눔이 끝나면 친교시간을 갖는데 서로의 전문성을 통해 유익한 정보를 공유하기도 하고 삶을 나누기도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자연스럽게 각 가정과 개인의 기도제목을 알아가기도 하는 귀한 나눔의 시간입니다.

어른 다섯 명으로 구성되어 조출한 숫자이지만, 각자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과 배경과 관심이 매우 다양하며 어떤 분들은 한국어, 어떤 분은 영어, 또 어떤 분은 이중언어를 잘 구사하십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경 번역본도 개역개정, 새번역, NIV, NLT 등을 다양하게 사용하셔서 돌아가며 성경 읽기를 할 때 고도의 집중력을 보여야 합니다.

신앙 여정의 위치도 각기 다 다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믿음의 방향은 같습니다. 또 셀식구들두의 나이대가 비슷하다는 것도 참 감사할 일입니다. 50대 중반에서 후반인데, 또 자녀들 나이들은 20대 후반에서 십 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은혜의샘셀에는 여러 기도 제목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공동기도제목은 현재 암투병중이신 이전 셀목자 집사님의 건강회복입니다. 그리고 또 바라기로는 새로운 셀식구가 더해져서 좀 더 많은 믿음의 셀식구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기도제목을 놓고 기도 중에 있으니 우리는 은혜의샘셀을 위해서도 많은 기도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늘 묵묵히 굳은 신앙의 심지로 자리를 지켜주고 계시는 우리 모든 셀식구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통해 감사와 사랑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김준엽 집사

베델 교육부 영어 중고등부(BYM)

우리 교회가 참 좋습시다!

BYM의 John 목사님께서 3주 전, 학생들을 교회로 초청해 주셨습니다. 물론 철저한 방역 절차와 등록을 거쳐 12월 26일, 교회의 코트야드에서 크리스마스 선물교환도 하면서 함께 예배 드리는 시간을 갖기로 한 것입니다. 10개월 만에 BYM 친구들과 목사님,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이 함께 할 수 있었던 그 시간이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일 년 내내 수고하신 김학남 고등부 팀장님 그리고 김성균 중등부 팀장님도 함께 하시며, 모두 안전거리를 지키고 주님 안에서 귀한 만남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John 목사님과 새로 오신 Daniel 전도사님이 리드해 주셨던, 오랜만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서 가지게 된 이 귀한 시간은 크나 큰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기도와 찬양으로 시작된 예배, 10개월 만에 교회에서 학생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약 40명의 학

생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온라인에서만 만나봤던 학생들과 처음으로 얼굴을 마주 대하는 이 감격스러운 만남에서 우리는 하루빨리 이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서 예전처럼 기쁨으로 매주일 교회에서 모일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저희 BYM 중고등부에서는 많은 사역들이 온라인에서 이어지고 있으며 이제 새해가 시작되면 중등부와 고등부가 예배도 나누어 드리게 됩니다. 주님께서 신실하신 두 분의 목사님과 전도사님을 보내주셔서, 그분들을 통하여 저희 아이들을 위해 늘 기도하시며 언제나 귀한 말씀을 나누어 주시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이제 2021년 새해를 맞이하며 BYM 사역이 어떻게 펼쳐질지, BYM을 통해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합니다. 말씀공부와 삶의 적용, QT, 제자훈련 그리고 매 주일 소그룹 성경공부를 통해 주님은 학생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10개월 만의 만남과 선물교환도 좋았지만 무엇보다 함께 모일 수 있음이 얼마나 좋았는지요. 이렇듯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도 아주 기쁘게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하루빨리 우리 모두가 "비대면" "온라인"이 아니라 아름다운 베델의 예배의 자리로 모이는 날이 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짧은 오후의 만남이었지만 그 시간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Sherry Kim 권사(BYM 교사)

베델 교육부
엘새 간증

기도로 자라나는 다음 세대



어린 딸과 통성으로 기도하는 이번 엘세는 제게 정말 큰 은혜였습니다. 제 기도예 딸의 목소리가 더해져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수지는 말합니다 "엄마, 엘 세 재미있었어." 이 아이가 기도의 힘, 기도의 맛을 알아가는 자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엘 세 기간동안 역사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김희영 집사(유년부 현수지 어머니)



케일럽은 면역력이 아주 약할 뿐만 아니라 다운증후군을 갖고 있는 아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는 너무나 위협적이었고,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었던 2020년이었습니다. 2021년 엘세 첫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는 지난 한 해 동안 너무 힘들고 지쳐서 흐트러진 우리의 믿음에 큰 위로와 도전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처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한 믿음의 태도를 흠모하며, 십자가 아래 다시 한번 나의 두려움과 연약함을 내려놓는 귀한 새벽 시간이었습니다. 두려움이 감사로 변하는 그런 뜨거운 고백의 시간 위에 기름 부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직 예수! 오직 은혜!

김수지 집사(소망부 케일럽 어머니)



어린 자녀들과 함께 '엘 세'로 새해를 시작하게 되어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벌써부터 하나님 말씀 앞에 훈련될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바른 믿음의 태도를 갖고 이 세상을 분별력 있게 이끌어 갈 우리 베델의 꿈나무들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지효정 집사(유치부 최지은 어머니)



비록 온라인으로 드리는 기도회였지만, TV 화면 넘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감동은, 제한적인 화면을 벗어나 저에게 큰 마음의 울림과 감동을 주었습니다.

양준서(10학년)



오늘 아침을 예배로 시작하고 한동안 있고 있었던 새벽기도를 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새벽기도가 더 기대되는 것 같아요. "Your attitude determines your altitude"와 "몽당연필" 시가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Lucy Hong(11학년)

베델 사역
엘새 간증

기도하면 됩니다!



지난 한 해는 정말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던 코로나 팬데믹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비즈니스의 문이 닫혀 우리의 평범한 일상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생활로 바뀌어 모두에게 힘든 한 해였습니다. 너무나 당연히 드렸던 예배를 예배당에서 드리지 못하게 되어, 주일에 본당에 모여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찬양하며 드리는 예배의 감격을 언제 다시 누릴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인 올해 2021년의 엘리아 새벽기도는, 그 어느 때보다 큰 소망과 기대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태도가 신앙의 고도를 결정한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엘세에 선포된 말씀을 통해 그동안의 나의 신앙의 태도를 돌아보고 믿음을 점검하며, 저의 잘못된 습관과 태도를 회개하고 새로운 태도를 결단하는 너무나도 귀하고 은혜로

운 한 주였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하셨습니다. 수많은 선택과 고민들을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며 이제까지는 내 계산과 생각, 인간적인 염려와 세상의 잘못된 기준에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하실 수 있으면" 이라며 나 스스로 제한했음을 고백합니다. 자족하지 못하는 끝없는 욕심과 염려의 손아귀를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왜 응답을 주시지 않는가에 좌절했던 나의 잘못된 믿음의 태도를 돌아보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루하루 얼마나 많은 은혜를 펴주어 주셨는지요. 연약하여 무너져있던 나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내 옆에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며 함께 울어 주셨음을 깨달았습니다. 지나고 보니 비로소 모든 것이 하나님이 손대지 않으셨던 것이 없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였음을 마음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엘세를 통해 나의 신앙의 태도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잘못된 믿음의 습관과 생각을 바로잡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매일매일 새 옷을 입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결국 일주일의 감동에만 그치고 다시 후회하는 나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될 수 있음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기도하면 될 수 있겠지'가 아닌 '기도하면 무조건 된다'라는 결단으로 올 한 해, 나를 낮추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힘차게 살아갈 것입니다. 나의 신앙의 고도가 높아질수록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은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우용 집사



담임목사: 김한요 목사

◎목회자◎

- 행정/기획: 정승락 목사
- 민음 목장/목회지원: 김형균 목사
- 소망 목장/선교: 주성필 목사
- 사랑 목장/예배 총괄/기도: 이충경 목사
- 은혜 목장/셀서역: 김홍식 목사
- 음악감독/예배기획: 김섭리 목사
- 새가족: 한순고 전도사
- BGC: Justin Kim 목사
- BGC(Family): Dan Nam 목사
- BGC(College/Worship): Peter Lee 전도사
- 일본어 예배: 손용주 목사
- 예살채플(총괄): 강문규 목사
- 예살채플(청년): 서찬석 목사
- 예살채플(청년): 김유미 전도사
- 영어고등부: 여옥제(John) 목사
- 영어중등부: 현호승(Daniel) 전도사
- 한어중고등부: 이형석 전도사
- 교회학교 디렉터: 이진아(Jinah) 전도사
- 초등부: 김은정(Jamie) 전도사
- 유치부: 이승진(Sharon) 전도사
- 유아부: 정가영(April) 전도사
- 소망부: 박정민 전도사
- Beyond the Blue: 이란혜 전도사
- 통역/홍리스/제자반: 이앤드류 전도사

◎성가대 및 찬양팀◎

- 지휘자: 박정영, 차은하, 이사무엘
- 오케스트라: 박정영
- 피아노: 신현진, 지지영, 한현미, 이해경
- 오르간: 이정은, 이해경, 박정연
- 솔리스트: 최정원
- 밴드디렉터: 정봉화

◎사역 간사 및 인턴◎

- 의료상담: 이강민 전도사
- 아기학교: 이제나(Jenna) 전도사
- 영아부: 윤희준 간사
- 유년부: 김재은 간사, 장지혜 간사
- 한어중고등부: 김소영 간사
- 영어중고등부: Grace Park 인턴

◎교회 직원 및 간사◎

- 사무장: 마현진
- 건물/차량관리: 김유호
- 사무실: 인현미, 박성혜
- 재정실: 이수민
- 방송실장: 박주남 전도사
-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음향: 최철기
- 음향: 강창위
- 방송실: 최종형, 이정희, 장석영
- 디자인: 박선경
- 웹: 김경아
- 수양관: 오춘란

사역광고

새로워진 온라인 베델 한국학교 개강!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처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캄캄한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비춰 주시는 길을 따라 시작하게 된 온라인 수업 개강을 앞두고 떠오르는 말씀은 시편 119:105입니다.

팬데믹으로 가을학기 휴강 중이었던 베델 한국학교가 2021년도 봄학기 온라인 수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2020년 11월부터 15명의 교사가 온라인으로 모여 12시간에 걸친 LA 한국 교육원 주최 교사 연수와 4번의 자체 시스템 연수를 받았습니다. 또한 다양한 디지털 학습 콘텐츠를 활용하여 더 재미있고 신나는 한국어 시간과 문화 수업 시간이 되기 위해 부족함이 없도록 많은 노력과 준비를 해왔습니다.

등록이 저조할까 봐 걱정했는데, 어린 유치원 아이부터 10학년 고등학생까지 약 150명이 넘는 학생들이 학급마다 채워지는 것을 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21년도 봄학기 한국어 온라인 수업은 큐티와 한국어 시간, 그리고 한국문화를 배우는 시간으로, 총 3시간 수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학기는 특별히 믿음의 인물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배우는 큐티로 시작합니다. 이어서 한국어 수업, 전통 공예, 난타, 스토리 텔링 등 다양한 문화 수업으로 한국 문화를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문, 기초, 초급, 중급, 그리고 회화반으로 구성된 15개의 학급 중, 입문 유치원 반을 열어서 어린아이들이 좀 더 흥미진진하게 한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만나 볼 것입니다. 회화반은 한국말을 알아들을 수 없는 영어권 3학년 이상의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편, 중고급반까지 마친 학생들이 SAT 반을 수료한 후, 매년 다수의 고득점을 획득함으로써 베델 한국학교의 자랑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베델 한국학교는 지역 사회의 학생들을 위한 학교였다면, 이제는 온라인 수업을 통해 거리상의 이유로 수강하지 못했던 타주의 학생들까지 등록하여 한국어 교육의 지경을 넓혀가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베델 한국학교의 교훈인 예수 사랑, 나라 사랑, 한글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을 널리 전하고 실천하는 학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 ▶ 학습 기간: 1월 16일-5월 15일(매주 토요일 오전 9시-12시)
- ▶ 학급 구성: 입문, 기초, 초급, 중급, SAT II 한국어
- ▶ 문의: 이석희 장로 (949)697-7606, 최문정 권사 (949)836-7687

선교후원

- [파송선교사] 창의적접근지역 | 손승욱, 김진영(김은경), 이바나바(옥소리), 장과장(주열매), 호세아(그사랑), Nader(Dina), Yeshua 루마니아 | 서형렬(서정희) 조지아 | 김현수(고봉주) 캄보디아 | 황순현(황현주)
- [협력선교사] 과테말라 실버 | 유한성(유영옥) 기니비사우 | 유요한(글로리아) 니카라과 | 박우석(이현숙) 이스라엘 | 장이석(정인나) 멕시코 과달라하라 | 허익현(김영중) 몽골 | 을지바트(민애경), Kathy Ribbs 베트남 | 성결(양선) 온두라스 | 이동철(이순미) 우간다 | 박민수(이순영) 일본 | 강민숙(변선영) 캄보디아 | 김우정(박정희) 코스타리카 | 금삼호(김미경)
- 탄자니아 | 황광인(황영숙) 태국 | 박상선(신영선) 필리핀 | 김송봉(유영선)
- 창의적접근지역 | 류진, 온세상, 이희숙, 차은경, 김예평(김진명)
- *선교기관 | 나눔선교회, 네이버스선교회, 멕시코 장로회 신학교, 밀알선교회, 바실레리아 신학교, 한미가정상담소, GP미주본부, Good News Spreaders(GNS), JAMA, NAUH, New Hope 선교 유치원, Silk Wave Mission, The Center for BAM(CBAM), The Gospel Coalition(TGC)
- *특별선교 | 복음방송(GBC), Pullman Korean Presbyterian Church(WA캠퍼스 사역), CTS, CGN TV
- *문서선교 | 기독교일보, 미주 크리스천 신문, 크리스천 위클리

베델 알림판

Bethel Announcements

◆ 온라인, 현장예배 안내

베델교회는 성도님들과 지역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제한된 숫자 내에서 교회 앞마당에서 실외 현장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신청은 매주 화요일 새벽 5시 30분부터 하실 수 있습니다(chekcin, bkc.org).

- ① 현장예배 신청: 토요일 0부 예배(온 가족 예배)
② 현장예배 신청 전 자가 점검을 해주세요!
- 최근 14일 이내 확진자와 직간접으로 접촉하신 분
- 발열 37.5 °C/ 99.5 °F 이상, 기침, 호흡 곤란 등 유사 증상이 있는 분
- 위 조건에 있는 분의 동거가족인 경우
위의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 예배 캠페인(Worship Manner Campaign)

"Non-Contact 시대, God-Contact하라." 코로나 시대, 여러분들의 예배는 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태도가 신앙의 고도를 결정합니다.



◆ 엘리야 특별 새벽기도회 개근상 전달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 1,200여 명의 성도님들과 240여 명의 교회학교 자녀들, 90여 명의 BYM학생들이 지난 6일 동안 실시간으로 엘새에 참여하였습니다. 개근하신 분들을 위한 선물은 성도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순차적으로 전달해 드립니다. 픽업 스케줄은 엘새 참가 신청을 하였던 핸드폰 번호로 발송해 드리며 홈페이지와 카톡 채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베델교회는 성도님들과 지역사회의 안전과 방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년 개근 선물 픽업: 1월 16일 오전 10-12시(교적1-7000번), 오후 1-3시(교적 7000번 이상)
문의: 교회 사무실 (949)854-4010, 김홍식 목사 (949)394-5320

◆ 수요특별기획 "프로젝트 아이엠"

팬데믹 기간, 나의 수요일이 바뀐다! "프로젝트 아이엠"이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베델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방영됩니다. 3개의 특별 순서로 편성이 되어 있으며, 이번 주에는 10회가 방영됩니다.
시청 방법: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교회 홈페이지 / 카톡채널 / 베델교회 유튜브 채널
① 주보 읽어주는 남자-따끈따끈한 교회 소식을 생동감 있게 전해 드립니다.
② 나는 선지자다-소선지서의 핵심을 권별로 살펴봅니다.(13일 김형균 목사-학개)
③ 스페셜 만남-이번 주에는 아주 특별한 만남의 시간이 있습니다.

◆ 새가족 온라인 등록

베델교회에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새가족은 언제든지 온라인으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 방법: 홈페이지로 들어오셔서 하단에 '새가족 등록(WELCOME)'을 클릭하시고 등록카드를 작성해 주시면 새가족팀에서 바로 연락드립니다.
문의: 한순고 전도사 (714)612-4075

◆ 유아부 새가족 등록

만 2세(24개월)가 된 영아는 유아부로 새롭게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부 담당 전도사에게 전화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하신 분에게는 특별 선물이 있으며 반배정을 해드립니다.
문의: 정가영 전도사 (949)922-3234

◆ 2021년 단기선교팀장 모임

2021년 단기선교를 이끄는 모든 팀장님들이 모여 온라인 선교박람회를 준비하고, 선교팀 운영에 대한 제반 원칙들을 공유하는 모임이 1월 23일(토) 오전 10시에 Zoom으로 있습니다. 모든 단기선교 팀장님들의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Zoom ID/문의: 972 5792 0241, 주성필 목사 (949)333-9213

◆ 베델 제자훈련 수료식

1월 24일(주일) 2부 예배 중 바이블 클럽, 양육반, 베델 BAM 훈련 수료식이 온라인으로 있습니다.
일시/장소: 1월 24일(주일) 2부 예배, 온라인

◆ 카타콤기도회

엘리아 특별 새벽기도회의 은혜가 카타콤기도회로 이어져 2021년 신앙의 높은 고도로 올라가길 원합니다. 카타콤기도회는 1월 21일(목) 오전 10시에 Zoom으로 모입니다.

◆ 셀목자 훈련 안내

상반기 신입 셀목자 훈련이 지난주부터 은혜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엘새 후 셀목자로 결단하고 싶은 분에게 오늘까지 기회를 드립니다. 신청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1월 3일(주일)-24일(주일) (4주-매 주일) 오후 2시-3시
방식: Zoom (신청자에게 메시지로 주소가 전해집니다.)
문의: 김홍식 목사 (949)394-5320

◆ 2020년 현금 내역서

2020년도 현금내역을 교적의 집 주소로 보내드리게 됩니다. 주소 변경이 필요하신 분은 교회 사무실에 전화나 이메일로 변경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문의: 교회 사무실 (949)854-4010, bethel@bkc.org

◆ 위로해 주세요

故 임경숙 권사님께서 1월 2일(토)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 모든 장례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베델뉴스 편집위원

- 발행인: 김한요 담임목사 편집장: 김한나 권사 사 진: 박성곤 장로, 최호경 집사
기 자: 강수연 자매, 김선홍 권사, 김유미 권사, 김지연 집사, 박인주 집사, 박정원 집사, 박진아 권사, 안예진 집사, 최경희 권사, 허성숙 집사, 황수정 집사

◆ 베델뉴스 원고파일은 bethelnews@bkc.org로 보내주세요.

코로나 숲을 뚫고 가는 로드맵

히브리서 강해

주일설교시리즈

Sunday Worship Sermon Note

Speaker: Rev. Bryan Kim

Book of Hebrews (36)

Faith That Makes Better Choices

(Hebrews 11:35b–40)

1. When buying vegetables at the market, the most important consideration is how fresh they are. When faced with several choices in front of you, what are the key considerations or standards that you rely on?
2. In our sermon on the Book of Acts (23) titled “Some are taken, some are saved”, we saw James being put to death with the sword, while Peter was miraculously freed from jail (Acts 12). In today's verses, there are descriptions of believers who God took from this world. Please describe them. (v.35b-38)
3. By describing the deliberate choice of hardships suffered by the early believers, what is the author suggesting about the meaning of these choices? (v.35b, Ref: 2 Cor 12:9-10, 2 Maccabees 7:22-23 Non-Canonical)
4. The early believers chose a better resurrection through faith. How can we apply this message of encouragement to go forward in faith and prepare for something better? (v.39-40, Ref: Heb 10:1, 10)

Apply to Life



■ Song in Response: I'd rather have Jesus(Hymn 102), Heart and Soul